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운영 범위와 경쟁력 분석

Journal Review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vember 2015



Contents

- 1.연구목적:
아시아인프라은행(AIIB)과 다자개발은행(MDB)의 차별성 분석
- 2.연구주제:
AIIB의 운영 범위와 차별화된 경쟁력 분석 무엇인가
- 3.연구방법:
MDB의 자금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AIIB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 4.연구결과:
자금 조달능력, 명확한 목표의식, 합리적인 의결권 배분을 통한 경쟁력 강화
- 5.시사점

본 자료는 중국 샤먼대 경제대학원의 황메이보 교수와 국제경제 및 무역대학원의 천뉘 교수가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운영 범위와 경쟁력 분석'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한 논문으로 2015년 4월 동북아시아포럼(Northeast Asia Forum)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연구목적

아시아인프라은행(AIIB)과 다자개발은행(MDB)의 차별성 분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늦어도 2016년 초에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설립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가시화된 AIIB는 설립 발표 이후 신흥국은 물론이고 유럽 선진국까지 앞다퉈 참여 의사를 보이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면에는 AIIB의 설립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견제한다는 중국의 야심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운영돼 왔던 MDB는 선진국들이 운영과 의사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해 왔다. 이 때문에 신흥 경제권의 요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산업 인프라 시설 투자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과 각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비해 기존의 MDB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새롭게 창설되는 AIIB의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AIIB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감은 결과적으로 향후 AIIB가 기존에 설립된 MDB와 어떠한 차별성을 보여줄지 새로운 숙제를 낳게 됐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샤먼대 경제대학원의 황메이보 교수와 국제경제 및 무역대학원의 천뉘 교수는 2015년 동북아시아포럼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운영 범위와 경쟁력 분석(An Analysis on the Operation Environment and Competitiveness of AIIB)'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기존 MDB와 AIIB의 운영 범위를 비교해 AIIB만이 갖는 차별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연구주제

AIIB의 운영 범위와 차별화된 경쟁력 분석 무엇인가

AIIB는 차관 대상 및 개발 부문에서 기존 MDB와 많은 공통 부문이 있다. 이에 따라 AIIB와 MDB의 상충 또는 경쟁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나아가 AIIB는 MDB의 문제점인 명확한 투자 방향성의 부재와 효과적인 자금 요청 처리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합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 논문은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별·분야별 자금 수요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MDB의 자금 공급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현시점의 MDB 운영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MDB와 AIIB의 기능을 비교 분석해 AIIB만이 가진 차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구방법

MDB의 자금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AIIB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저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투자 유망 지역을 선정했다. 또한 부문별 수요 산업 분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우선적으로 투자가 진행돼야 할 산업을 제시했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와 부문별 수요 산업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 MDB인 WB와 ADB의 자금 운용 현황을 법정자본·거출자본·납입자본을 기준으로 분석,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향후 AIIB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존 MDB와의 경쟁 우위에 있는 차별점을 파악했다..

연구결과

자금 조달능력, 명확한 목표의식, 합리적인 의결권 배분을 통한 경쟁력 강화

ADB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과 2020년 사이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에 8조2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리한 동아시아 지역이 66.8%, 남아시아 28.8%, 중앙아시아가 4.4%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 중국과 인도의 비율이 79.5%에 달해 인프라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 투자의 68%는 신규 투자에, 32%는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가 48.8%, 교통 35.3%, 정보통신 12.6%, 수자원 및 정화 시설이 3.3%를 차지한다. 인프라 투자 수요는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6.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연평균 7470억 달러의 투자 규모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기존 MDB인 WB와 ADB의 총자본금은 3890억 달러에 불과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ADB의 인프라 개발 지원 규모는 2010~2013년 기준 연평균 120억 달러에 불과했다. 54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와 53억 달러 규모의 운송·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주를 이루며 ADB 전체 사업 대비 인프라 투자 비율은 최근 4년간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AIIB의 회원국들의 폭넓은 참여와 균형 잡힌 지배 구조, 투자 이익의 경쟁력, 운영 효율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AIIB만이 보유한 기존 MDB와의 3가지 차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신흥국을 넘어 선진국까지 많은 국가를 AIIB에 참여함에 따라 자금 조달 능력을 향상시켰다. AIIB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등 아시아 역내 37개국과 브라질, 영국, 프랑스 등 역외 20개국 등 57개국이 참여했다. 이런 신흥국과 선진국의 광범위한 참여는 AIIB의 자금조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AIIB 내에 중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확보한 회원국의 지분이 확대될수록 채권발행을 통한 AIIB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게 될 것이다.

둘째, AIIB는 아시아지역의 기초 인프라 투자 활성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빈곤퇴치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설립목적을 두고 투자를 진행해온 것과는 달리 AIIB는 에너지, 전력, 교통, 통신, 농업개발, 수자원개발, 위생, 환경보호, 도시개발, 물류 등 인프라 중점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아시아 역내 지역 내·외부의 의결권을 더욱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AIIB의 자금 흐름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권은 각 회원국의 출자 규모, 경제 규모, 각 회원이 동등하게 받는 기본 의결권과 각 창립 회원국에게 할당되는 지분에 따라 배분된다. 의결권의 최소 75%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다자개발은행에서 소외되었던 개발 도상국의 발언권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 다자개발은행에서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의 의사결정 독점을 비난해온 중국은 AIIB에서 보다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지난 3월 26일, 한국은 공식적으로 AIIB 창립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다고 선언했다. 미국과의 관계 등 외교적 고려와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경제적 실익 사이에서 약 반년 간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혈맹이라고 불리는 미국과의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한 AIIB라는 경제적 실익에 한국은 얼마나 알고 준비가 돼 있을까.

이번 논문은 머지않은 미래인 2016년, 본격적으로 운영될 AIIB의 청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MDB와 다른 아시아 인프라에 의한, 아시아 인프라를 위한, 아시아 인프라의 새로운 다자 개발은행인 AIIB의 차별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어쩌면 아시아 인프라 시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박도휘 선임연구원
dohwipark@kr.kpmg.com



Contact us

김범석

원장

T: 02-2112-0770

E: edwardkim@kr.kpmg.com

이광열

상무이사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

박도휘

선임연구원

T: 02-2112-0904

E: dohwipark@kr.kpmg.com